

익산시 친환경 농업 '순풍'

익산 마한로 일대 확 뚫렸다

생산단지 80ha 추가 조성... 2024년까지 1,300ha 목표
다양한 판로 · 건강한 먹거리... 농가 · 소비자 만족도 ↑

익산시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탄탄대로를 달리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추가 조성 △친환경 비 전용 조성사업 설치 △친환경 잡곡 유통시설 구축 △친환경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농지관리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은 인손이 많이 간다는 인식으로 추가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개 단지 대표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설득을 통해 합대면 32ha, 삼기면 48ha, 총 80ha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추가 조성했다.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 676ha를 시작으로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가 2024년까지 총 1,300ha를 조성해 도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 완공된 친환경 잡곡 유통시설을 전라북도 내 학교급식 친환경 잡곡의 공급

기지로 삼고 올해 12월 완공되는 친환경 비 전용 조성사업도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친환경 쌀의 수도권 진출의 교두보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할 방침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공급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학생 가정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마을전시장거래 운영 등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마음껏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엄마와 아이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50명의 임산부에게 607개의 꾸러미를 배송했다. 이처럼 임산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품목의 임산부 맞춤형 꾸러미 구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 가정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은 코로나19로 미사용된 학

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각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10억7,700만원을 투입해 10여가지 품목의 꾸러미를 3만3,479명의 각 가정에 공급했다.

특히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신선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식비 경감과 가족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었다는 평가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시는 후속 조치로 11억2000만원을 투입해 2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방학 기간인 8월 중순까지 추가 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학교급식 납품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시청 전 직원, 유관기관·단체, 군부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로컬푸드직매장에 진열·판매해 총 5천300만원의 농가 매출을 올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주었음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공급해 코로나19 피해 위로와 극복 의지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어양동 일대 마한로가 확 뚫렸다. 시는 3년간 약 8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한로 도로개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시민들의 협조하에 조기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개통식을 열고 정현을 익산시장과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도로 공사 준공을 축하하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 지역은 지난 2017년~2018년에 걸쳐 어양동 변전소 인근에 리온 프라이빗 아파트 1, 2단지가 들어서면서 4개 아파트의 7개 단지가 밀집, 총 1,500세대 3,700명이 거주함에 따라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출퇴근시는 물론 주말에도 큰 혼잡을 빚어왔다.

따라서 교통량을 분산시켜 인근 주

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로 개설 공사에 돌입했다.

이에 민선7기 들어 약 600m 구간 마한로(도로3류14호) 도로개설공사(L=600m, B=25m)에 대해 3년에 걸친 집중 투자 끝에 조기 개통하게 됐다.

이로써 도시 가로망이 구축되어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소는 물론 인근 지역 전체의 교통난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이번 공사가 당초 완공일보다 1년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이 장기간 소요되는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부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로 100% 협의 취득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7월 정기분 재산세 군산시, 305억원 부과

군산시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2000건 30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본의 경우 재산세 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5억원, 주택 109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1억원으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1.7% 증가하였다.

시에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식용곤충 품질 균일화 나서

익산시가 미래 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식용 곤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용곤충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 균일화에 나섰다.

익산에는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곰팡이)가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데 기존의 먹이가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익산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해 사료 배합기와 이송기를 지원함에 따라 식용 곤충 사육 농가에 표준화 먹이 공급 기반이 조성됐다. 곰팡이의 표준화된 먹이는 부속 불발인대 발효를 위해 미생물 등 여러 부재료가 혼합된다. 기계를 이용하면 위생적으로 먹이를 제조·운반할 수 있고 많은 양도 고루 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의 품질이 향상되고 사육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예산활동 연일 강공

중앙부처 방문, 현안 반영 건의

정현을 시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 시장은 14일 기획재정부의 최종심의단계 증액심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서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를 만나 시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함께 예산편성을 호소했다.

우선 대규모 SOC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택~부여~익산 서부고속도로, 새만금과 산업단지를 잇는 물류허브가 될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서수~평장) 개설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국립김영병연구소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이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접근성·연계성·확장성 측면에서 두 사업의 최적지가 왜 익산이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왕궁현업 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사업, △익산비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챌린지 오픈

군산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운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워크온' 챌린지를 오픈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시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통한 심만보 걷기 챌린지를 오픈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 속 시민들의 1인 걷기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우울감을 극복하고 신체활동 증진을 통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워크온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목표 걸음 수 달성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선물을 제공해 일상 속 걷기 운동을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걷기 앱으로 군산시가 지난 달(6월)부터 워크온과 계약을 체결하고 군산시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하였다. 시는 이번 오픈 챌린지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30일(2주간)까지 심만보를 달성한 시민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큰 호응

'비만 탈출 프로젝트' 연계 등 '내혈관 숫자알기의 달' 완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내혈관 숫자알기의 달'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 혈관 숫자알기의 달' 프로그램을 서부권 지역주민 240여명이 한달동안 참여한 가운데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부권 지역주민의 우울감과 자가건강관리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중요성을 향상시키고 혈관질환 자기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성분검사를 무료 시행해 결과에 따라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 상담, 식습관개선 영양교육, 적정 체중을 위한 운동처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요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검사결과와 만성질환 유소견자는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 혈관 숫자알기의 달' 프로그램을 서부권 지역주민 240여명이 한달동안 참여한 가운데 높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속적 혈관질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부권 협약의료기관으로 의뢰했고 비만 등 체중 관리가 필요한 53명을 선정,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선제적 대응으로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비만은 낮추고 건강은 높이는 비만 탈출 프로젝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체지방 유지 관리에 힘쓰도록 했다.

백종현 군산시보건소장은 "하반기 만성질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동검사를 실시 후 비교분석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효과를 평가하여 자신에 맞는 운동법 선정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 우선기회, 정기검사 수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력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